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고 선 옥* 강 연 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영화치료를 통하여 기독교 가정의 자녀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인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 부모들을 교육시키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인 부모를 대상으로 Horace Bushnell(2004)의 기독교적 양육 이론과 Birgit Woltz(2006)의 영화치료 이론 그리고 John Gottman(2007)의 감정코칭 이론을 기틀로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C시에 소재한 C/D교회에 출석 중인 9-12세 학령기 자녀가 있는 기독교인 부모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각 15명씩을 무선 배치하여 주 2회, 각 120분, 총 12회기로 진행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25를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기독교인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 자녀의 의사소통 및 부모의 영적 안녕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기독교 부모의 양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중심으로 자녀와 의사소통을 통한 영적 안녕감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내 활용 가능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기독교 부모교육, 기독교 영화, 기독교 영화치료, 영화치료 프로그램, 감정코칭

• 논문 투고일: 2020년 3월 27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5월 1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9일

*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박사

**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부교수

• 본 연구는 고신대학교 고선옥의 박사학위 논문(2020년 2월, 지도교수: 강연정)을 요약·재구성한 논문임.

I. 여는 글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적 환경으로서 자녀의 신앙이나 성격, 그리고 가치관은 물론 태도와 행동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 일찍이 Calvin(1834: 264)은 “가정을 작은 교회(parvae ecclesiae)라고 하며 가정이라는 공간도 교회의 연장이고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부모교육이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언급한 것은 현대에 와서도 그 의미가 전혀 퇴색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독교인 부모는 가정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는 성경의 내용에 기초를 둔 교육을 강조하며 ‘기독교 신앙의 전수’라는 책임과 자녀를 전인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교육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전통적인 대가족에 기반을 둔 정서적 지지체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자녀 양육에 따르는 불안과 부담감이 증가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학령기 후기(9-12세)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또래관계를 중요시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민감한 시기에 처한 자녀의 불안정한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과중한 기대만을 가진 채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안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정황 속에서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절제, 자족, 신뢰감, 책임감, 성실성 등 신앙적 자질들을 길러 주어야 하고 더 나아가 자녀가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현실에 마주하게 된다(Köstenberger, 2016: 182).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연정(2005: 135)에 따르면, “부모-자녀 간에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바르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어 억압이나 우울, 편집, 강박 등 병리적 성격특성을 형성하게 되며 문제행동을 조장하게 되기도 한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다른 어떤 유형의 관계보다도 긍정적,

부정적 감정이 다양하고 강하게 경험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인데 그러한 감정이 경험되는 만큼 표현되기는 어려운 관계임에 분명하다(이순형 외, 2010: 71). 이에 대해 Gottman(2007: 153)은 “감정코칭(emotion coaching)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감정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건강한 부모와 자녀관계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부모역할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부모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Bushnell(2004: 98)이 신앙 안에서 감정이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과 유사성이 깊다. Bushnell(2004: 80)이 제시한 감정에 대한 이해와 소통은 기독교인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적 유기체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활동에서 사용하는 주된 표현예술양식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와 증상완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연극치료, 표현적 글쓰기, 무용치료, 인형극, 모래놀이치료 등이 있지만(White & Davis, 2015: 32). 최근 예술치료의 한 영역으로 새롭게 등장한 영화치료 또한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검증받아 왔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종합예술인”(이영일, 1997: 38) 영화를 보고 난 후, 기독교인 부모들은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한 등장인물의 행동을 자신의 변화에 대한 단초로 삼고 등장인물의 행동을 모델링(modeling) 할 수 있다. 죄책감이나 좌절감을 느낀 기독교인 부모 가운데 일부는 영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조절하고 세상에 대한 지각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특히 상호작용적 영화치료(interactive cinema therapy)의 경우 영화라는 텍스트를 사이에 두고 교육자와 피교육자 또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삶을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내담

자가 부인하는 감정과 인지, 정서, 행동 사이에 연관을 맺어 주기 때문이다(Heston & Kottman, 1997: 92-99; Schulenberg, 2003: 35-48).

또한 내담자가 영상 텍스트가 형성하는 맥락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문제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을 수 있게 하는 점은 영화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만드는 기능이기도 하다. 김수지(2013: 85)는 “영화치료가 좁은 의미로는 영화 감상을 통하여 심리적인 치료를 돕는 것을 가리키고, 넓은 의미로는 치료 및 심리치료의 수단으로 영화를 활용하는 방법 모두를 가리키고 있음을 뜻하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특히 영화라는 기술도구를 가지고 심리치료에 또는 교육에 접목시켜 활용하는 영화치료(cinematheapy)는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강진구(2012: 83)는 “만일 그것이 기독교 영화치료(Christian cinema therapy) 라면 일반적인 영화치료와 다르게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인간이해에 그 기초를 두고 기본적인 성경의 패러다임 안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내담자를 맞이할 수 있는 근본 자세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부모교육이 필요로 하는 영적 안녕감을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실증적으로 연구된바 없는 기독교 영화 치료 방법을 통해 부모 자신의 이해와 양육행동 그리고 의사소통을 탐색, 수용함으로써 부모 자신의 삶을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건강하고 통합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실제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제시한 기독교영화를 보며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사고와 심리 및 행동에 나타난 변화가 보다 성경적인 가족관계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실험을 통해 한국교회 부모 교육에 보탬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기자녀를 둔 기독교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영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부모 자신의 영적 안녕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기독교 부모교육(Christianity parent education)

기독교 부모교육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신앙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성경적 관점을 기초로 한 부모 자신의 자기이해와 신앙 성장을 전제로 한다. 이숙미(2008: 7)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바로 수행함에 있어서 자녀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며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 자녀 양육에 대한 기독교적 지식과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Horace Bushnell(2004: 54)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 양육의 핵심을 예수님에게 두고 어린이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인용하여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 신앙과 성령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드리기 위한 행위를 깨닫고 그의 백성에게 명하신 부모의 교육적 의무에 순종하는 초점에 맞추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Calvin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Horace Bushnell은 가정은 경건과 신앙의 성품이 세워지며 가정을 유기적인 형태로 설명한다. 더 나아가 가정은 유기적인 연합체로 부모와 자녀가 관계의 결합으로 보았다. 즉 부모는 가정안에서 가르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병일, 1989: 50). 기독교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숙미, 2008)과 기독교인 부모의 자기 성장을 통한 부모역할 증진 프로그램(채경선, 2006), 그리고 성경적 상담을 활용하여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입증한 연구(정희정, 2008) 등의 효과 검증을 거친 경험적 연구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영화치료(cinema therapy)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 검증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여성 한부모의 행복증진을 위한 집단영화치료 프로그램(강경란, 2013)과 우울한 50대 전업주부의 영화치료 경험 연구(김정화, 2015)등 효과를 검증한 연구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치료의 한 영역으로 등장한 영화치료는 심리적인 문제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를 받아 왔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하다. 그러므로 기독교인 부모는 먼저 하나님께 부여 받은 자녀 양육을 위해서 먼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자녀에게 신뢰감을 줄 때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정옥분과 정순화(2008: 133-134)는 “자녀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부모에게 전수 받을 때 창의성향, 성격, 정서, 사회성, 의사소통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또래관계 및 사회적 유능성이 높게 발달할 수 있는 것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자녀로부터 신뢰받는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의 특성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의 따뜻한 심리적인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

2) 영화치료(cinematherapy)

영화는 시청각 이미지를 통한 현실의 재구성이며, 현실을 다시 보도록 하는 예술이다. 내담자는 영화를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을 현실보다도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내담자의 입장에

서 보자면 영화를 보는 일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를 듣는 것을 넘어서 논리, 언어, 시공간, 음악, 대인관계, 운동 감각 등 다중지능을 수반하는 일이며 무엇보다 영화 속 인물들과의 동일시를 통해 내담자에게 접근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기조력적 영화치료(self-help cinema therapy)가 효과를 낼 수 있다(Woltz, 2006: 165). 영화가 일으키는 심리적인 영향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감상에서부터 구체적인 심리치료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영화를 보며 등장인물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관찰하고 평가하며 자기 자신의 사고나 감정을 투사하고 자신의 가능한 행동들에 대해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영화치료는 영화라는 매체를 통한 공유된 경험을 통해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가능케 한다. 이는 상호작용적 영화치료(interactive cinema therapy) 방법으로 상담자의 개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 Woltz(2006: 32)는 이 같은 상호작용적 영화치료의 방법을 세분화하여 지시적 접근(the prescriptive way), 연상적 접근(the evocative way), 정화적 접근(the cathartic way) 등 세 가지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영화치료를 통해 내담자는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하고 통찰을 촉진시키며, 개인적 이해를 심화시킨다(김수지, 2005, Wedding & Niemiec, 2003: 207-215). 그러므로 상호작용적 영화치료는 전통적인 상담기법으로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영화치료 방법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예술을 통해 신앙의 가치를 표현해온 기독교 예술의 역사는 영화를 통해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교육과 선교의 관점을 넘어 오늘날 기독교 영화는 치료적 접근을 통해 기독교 영화 역할의 확장을 모색 중이다. 강진구(2012: 83)는 한국 사회의 현실은 영화치료(cinema therapy)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키며 아울러 기독교 영화치료(Christian cinema therapy)가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매우 유

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열고 있음을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 가운데 기독교 영화치료(Christian cinema therapy)는 일반적인 영화치료와 다르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인간 이해에 그 기초를 두고 기본적인 성경의 패러다임 안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내담자를 맞이할 수 있는 근본 자세를 갖추는 것으로 보았다.

기독교인 부모는 영화를 보면서 동일시, 투사, 이상화, 모델링, 대리 학습 등 영화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거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할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조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스스로 알아차림과 함께 영화를 통해 만나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통해 은혜와 긍휼을 깨달으며, 자신을 향한 극진한 사랑, 관심과 돌봄에 대한 의식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화가 갖는 치료의 기능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기독교 영화를 기독교인 부모들에게 교육과 치료의 관점으로 영화치료의 접근 방법으로 효과적인 방법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 제기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3) 감정코칭(emotion-coaching)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의 문제 중심에는 의사소통의 난제가 자리하고 있다. 의사소통의 불완전성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문제들은 포괄적으로 보면 자녀양육의 기술의 부족이라 말할 수 있는데, 부모 대부분은 자녀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더욱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여 가족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Gottman이 30여 년간 연구하여 개발한 상담기법이 감정코칭(emotion coaching)이다. 감정코칭에 관한 연구와 실천은 1960년대 Haim G. Ginott(2003:

105-124)에 의해 실행되었는데 그는 감정(emotion)에 초점을 맞춘 대화 방법으로 자녀의 감정은 수용하되 행동은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inott(2003: 105-124)는 자녀와 의사소통을 할 때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기보다는 자녀가 보이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면 자녀가 더욱더 자신이 인정받고 수용 받는 것이라 여기고 부모와 소통한다고 말하였다. 감정은 받아주되 행동을 고쳐준다는 Ginott의 이론을 1990년대 Gottman은 더욱 체계화된 연구를 통해 감정코칭 5단계를 개발하고 부모들의 구체적인 자녀 교육방법에 적용하였다. 5단계의 과정은 자녀의 감정을 인식하는 1단계와 감정의 순간을 좋은 기회로 삼는 2단계,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경청하는 3단계, 자녀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4단계, 그리고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5단계로 진행된다. 그러나 감정코칭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감정을 보일 때 감정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녀의 감정을 모두 읽어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알려주기 바랄 때 부모는 이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Gottman, 2007: 103-148).

기독교 상담에서 자녀의 감정을 다루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기독교 상담가인 Collins(2008: 176) 또한 감정은 하나님의 창조한 것임을 강조했다. 불안과 분노는 하나님의 창조한 감정들이나 데 불안은 염려, 불편함, 걱정 그리고 신체적 긴장을 동반하는 공포의 내적 감정이며, 분노는 우울증, 격노, 병, 무능력, 불안, 비탄, 갈등, 그리고 대인관계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분노와 불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삶의 짐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고 혼자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약1:20), 이 분노는 죄의 원인이 되며,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욥5:2;19:29). 그러므로 기독교인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의

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신 스스로의 감정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쉽지 않은 일로서 감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코치(coach)가 필요하다.

2. 연구방법

1)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기독교인 학령기 부모교육을 위한 Horace Bushnell의 기독교적 양육 이론, Gottman의 감정코칭 이론, Birgit Wolz 영화치료에 대한 교육 및 이론적 기틀로 김창대(2011: 34)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기초로 하여 학령기 기독교 부모를 위한 영화치료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프로그램 개발 절차		주요 내용
1단계	문헌연구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		
2단계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필요성 •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수립
↓		
3단계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및 목표 수정 • 내용 및 활동 수집 • 영화치료 선정 및 프로그램의 내용구성 •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평가
↓		
4단계	예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모임 및 집단의 구조화 • 프로그램 실험 모형 실시
↓		
5단계	수정 및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 프로그램 완성
↓		
6단계	실행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실시 • 프로그램 효과 검증

[그림 1] 기독교 부모교육을 위한 영화치료 프로그램 개발과정

2)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영상에 있어서 가장 예술성을 지닌 영화를 보고 치료적이며 심리적 기제인 동일시와, 투사, 이상화, 모델링, 대리학습 등의 가치를 찾을 수 있고 학령기의 자녀를 둔 기독교인 부모들이 자신의 양육행동과 자녀와 감정을 수용하기를 통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프로그램의 회기별 주제 및 활동내용

단계	회기	제목	목표	내용
시작 단계	1	첫 만남, 친밀감 형성 및 영화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의 정체성 이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의 주제, 진행과정 및 규칙 등에 관한 이해한다. 2. 부모의 성경적 의미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3. 영화 <너는 특별하단다 3편 : 초록색 코가 된다면>를 보고 '감정포착하기'에 대해 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주제 및 진행과정 소개 • 부모 자신의 정체성 인식 • 자녀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감 인식 • 좋은 모델링 • 다양한 감정 표현 인식
변화 단계	2-3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모 (I, II)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경적 부모의 역할을 잘 알 수 있다. 2. 영화 <믿음의 승부>를 보고 '좋은 기회로 여기기'에 대해 알 수 있다. 3. 성경적 자녀의 양육방법과 특징을 알 수 있다. 4. 영화 <체스의 여왕>을 보고 자녀의 감정과 공감을 발견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자녀는 유기적 연합체 •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 • 좋은 기회로 여기기, 자녀의 감정과 공감 이해 • 부모 자신의 정서적 통찰 • 경청, 공감이해, 수용 방법 이해
회복 단계	4-5	가정 안에서 바람직한 의사소통 (I, II)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성경적 의미 및 의사소통방법을 알 수 있다. 2. 영화 <아이 캔 온리 이매진>을 보고 비난/방어에 대한 해독제인 해결방안을 습득할 수 있다. 3. 성경적 자녀관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4. 영화 <용기와 구원>을 보고 경멸/담쌓기에 대한 해독제인 해결 방안을 습득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약 공동체, 약속 공동체 • 문제해결 과정 관찰 학습 • 방어/비난에 대한 의사소통 방법 이해 • 심리적 거리 생각과 행동을 명료화 실행 • 경멸/담쌓기 부모의 의사소통 방법 이해

회복 단계	6-7	감정적 유대감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 (I, II)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자녀 간의 감정적 유대감 형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영화 <어 퀘스천 오브 페이스>를 보고 축소전환형 해독제인 해결방안을 습득할 수 있다. 3. 부모-자녀 간의 감정적 유대감 형성을 인식할 수 있다. 4. 영화 <그레이스 언플러그드>을 보고 억압형 해독제인 해결방안을 습득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건과 신앙의 성품 유기적인 형태 이해 • 부모 자신의 문제 객관화, 재구조화 인식 • 부모를 통해 하나님 만남 인식 • 긍정적인 감정 유대감 형성 인식 <p>*부모의 양육유형 이해</p>
	8-9	긍정적 정서 향양을 위한 의사소통 (I, II)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모-자녀 간의 성경의 긍정적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 2. 영화 <은혜의 빛>을 보고 방임형 해독제인 해결방안을 습득할 수 있다. 3. 부모-자녀 간의 성경의 긍정적 정서를 인식할 수 있다. 4. 영화 <오두막>을 보고 감정코칭형을 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건 안에서 거룩한 덕을 함양 • 긍정적 정서 향유 • 자유연상, 감정 인식 • 기정은 자녀와 친화력 공간 • 감정코칭형 양육유형 이해
성장 단계	10-11	부모-자녀의 진정한 살롬 속 영적안녕 (I, II)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경적 가정의 씨앗 싹틔우기를 발견할 수 있다. 2. 영화 <모스트>를 보고 감정에 이음을 붙이기를 익힐 수 있다. 3. 성경적 가정의 씨앗 싹틔우기를 연습할 수 있다. 4. 영화 <워 룸>을 보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자녀 속에 자신의 선이 생기도록 연상 • 감정적인 정화, 정서적 고양 • 진정한 살롬 • 바람직한 행동 이끌어 주는 방법 이해
	12	통합적 실천 적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적 기독교 부모됨을 실천할 수 있다. 2. 영화 <미리클 프롬 해븐>을 보고 감정코칭형과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자녀가 가정과 교회에서 참된 성품성장 통합적 실천 • 통합적 실천 감정코칭형 이해

3)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영화 선정이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화의 선정이유는 전체적인 기독교 영화로 치료적 심리기제인 동일시와, 투사, 이상화, 모델링, 대리학습과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인간이해에 그 기초를 두고 기본적인 성경의 패러다임 안에

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내담자를 맞이할 수 있는 근본 자세를 갖는다(강진구, 2012: 83)는 점에 기독교 부모교육이 필요로 하는 영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정된 영화와 선정 이유는 <표 2>와 같다.

<표 2> 영화의 교육적 배경 및 선정 이유

회기	영화제목 (제작년도)	교육적 배경	선정 이유
1	너는 특별하단다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편 치널로를 보고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인 부모라는 정체성을 다시 인식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부모 자신과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각기 다르게 만든 이유와 자신이 특별한 부모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화(너는 특별하단다)를 선정하였다.
2	믿음의 승부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장인물 아버지 래리 칠더스와 아들 데이빗을 통해 부모의 자기 이해를 돕고 기독교교육의 중요한 장소인 가정 안에서 신앙을 잃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경적 부모의 역할 이해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모의 모습의 인식을 목적으로 자신의 삶을 조명하고, 아버지 래리 칠더스가 아들 데이빗을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며, 신앙을 잃지 않는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현재 자신의 모습을 통찰하고, 부모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화<믿음의 승부>를 선정하였다.
3	체스의 여왕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쿠 해리어트가 딸 피오나와 다른 자녀를 위해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모습을 인식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에 대한 공감 이해를 목적으로 자신의 삶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쿠 해리어트가 딸 피오나를 양육하는 모습과 현재 자신의 모습을 통찰하고, 자녀의 양육방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화<체스의 여왕>을 선정하였다.
4	아이 캔 온리 이매진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버지 아서와 아들 바트는 상호소통이 아닌 폐쇄형 의사소통인 비난과 방어 의사소통 유형을 이해하고 개방형 의사소통을 인식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목적으로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을 알고 어떻게 반응하고 표현할지에 대해서 아버지 아서와 아들 바트의 폐쇄형 의사소통이 아닌 개방형 의사소통으로의 전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화(아이 캔 온리 이매진)를 선정하였다.

5	용기와 구원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미첼과 딸 에밀리와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 딜런과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유기적 소통을 인식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적 자녀관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의사소통 이해를 위해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을 알고 바람직한 의사 표현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미첼과 9살인 딸 에밀리와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 딜런과 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영화(용기와 구원)을 선정하였다.
6	어 퀘스천 오 브 페이스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데이빗과 아들 에릭의 감정적 대응상황에서 긍정적 정서가 나타나도록 축소전환형 의사소통이 아닌 부모가 개방형 의사소통방법을 인식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자녀 간의 감정적 유대감 형성을 위한 긍정적 의사소통을 인식하는 목적으로 자녀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을 알고 바람직한 표현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아버지 데이빗과 아들 에릭의 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영화(어 퀘스천 오브 페이스)을 선정하였다.
7	그레이스 언 플러그드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조니 트레이와 딸 그레이시 트레이의 감정적 대응과 긍정적 정서를 위하여 부모의 억압형 의사소통이 아닌 부모가 개방형 의사소통방법을 인식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자녀 간의 감정적 유대감 형성을 위한 긍정적 의사소통과 감정조율을 인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소통 유형을 알고 바람직한 의사표현법을 아버지 조니 트레이와 딸 그레이시 트레이의 대화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영화(그레이스 언플러그드)을 선정하였다.
8	은혜의 빛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맥과 어머니 새라의 감정과 아들 블레이크의 감정적 대응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 함양을 위하여 부모의 방임형 의사소통이 아닌 부모가 개방형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인식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 정서 함양을 위한 의사소통을 인식하는 목적으로 자녀의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구분하지 않는 가운데 아버지 맥과 어머니 새라의 감정과 아들 블레이크의 정서를 통해 부모 자신의 감정에 대한 유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화 (은혜의 빛)을 선정하였다.
9	오두막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맥과 어머니 낸이 감정적 대응상황에서 긍정적 정서를 위하여 부모의 감정코칭인 개방형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인식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자녀 간의 성경적인 긍정적 정서 함양을 위한 의사소통을 인식하는 목적으로 감정코칭형의 모습으로 등장한 아버지 맥과 어머니 낸이 자녀의 감정을 받아주고 공감해 주며 감정을 표현해 주는 모습을 통해 부모 자신의 행동과 특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화 (오두막)을 선정하였다.

10	모스트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자녀가 진정한 사랑을 위해 감정적 대응과 감정에 이름 붙이기를 통해 영적안녕을 인식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에 이름 붙이기를 통해 명료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진정한 사랑 속 영적안녕의 싹을 틔우기 위해 등장인물인 아버지와 아들의 감정 상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영화 <모스트>을 선정하였다.
11	워룸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토니와 어머니 엘리자베스 그리고 딸 다니엘의 부모와 자녀가 진정한 사랑을 위해 감정적 대응과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기 위한 영적안녕을 인식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 속 영적안녕으로 부모-자녀 간의 씨앗 싹틔우기를 위해 등장인물 아버지 토니와 어머니 엘리자베스 그리고 딸 다니엘의 감정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화 <워룸>을 선정하였다.
12	미라클 프롬 헤븐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자녀가 진정한 사랑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으로 실천되는 통합적인 적용을 인식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관점에서 아버지 케빈과 어머니 크리스티가 딸 에나를 감정코칭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통해 기독교인 부모 자신의 행동 특징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화 <미라클 프롬 헤븐>을 선정하였다.

4)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내용 타당도 검증

이상의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가지고 2차에 걸쳐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영화치료를 활용한 학령기의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전문가는 기독교 상담학 교수1명, 영화평론가이며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1명,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5대 학회장이시며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전문 수퍼바이저 1명, 예장 고신 소속 목회자 1명,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상담학전공 박사 1명 등 5인의 전문가에게 델파이 기법을 활용해 내용타당도 검증 받아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5) 예비조사 실시 및 프로그램 보완

예비조사는 경남 C도시에 소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인 D교회 출석교인으로 초등학교 4~6학년 자녀를 둔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예비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마친 후 참가자들이 요청한 진행형태, 프로그램 내용 등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참고하여서 본 프로그램을 수

정, 보완하여 최종 12회기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6) 프로그램의 진행과정

본 프로그램은 총 12회기로 이루어져 있다. 시작 단계(1회기: 프로그램 소개 및 기독교 부모의 정체성 이해), 변화단계(2-3회기: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 회복단계(4-9회기: 부모-자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성장단계(10-12회기: 부모의 영적 안녕감 향상) 등 각 회기별로 강의와 활동 그리고 시연 및 소감나누기와 경험 나누기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매회기 마다 찬양과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 후 자녀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떠올리는 행복일기를 나누고 시작하였다. 이어서 각 회기 주제와 목표에 대해서 부모들 간의 지켜야 할 유의사항 및 집단규칙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영화 시연 후 주제에 따른 영화치료기법(지시적 기법, 연상적 기법, 정화적 기법)을 시행하였다. 매회기 끝에는 활동을 경험한 것에 대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행복일기를 쓰는 과제를 내준 후 그룹별로 느낌 나누기를 하고 다음 시간 프로그램 소개와 묵상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였다. 회기 당 120분이 소요되었다.

3.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영화치료를 활용한 학령기의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집단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아무처치를 가하지 않은 통제집단을 비교하는 사전-사후-추후 실험설계를 사용하였다. 연구 설계모형은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설계 모형

	사전조사	실험처치	사후조사	추후조사
실험집단	O ₁	X	O ₂	O ₃
통제집단	O ₄		O ₅	O ₆

O₁, O₄ : 사전조사(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영적 안녕)

O₂, O₅ : 사후조사(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영적 안녕)

O₃, O₆ : 추후조사(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영적 안녕)

X :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남 C도시에 소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2곳의 C/D교회에 출석중인 학령기인 4학년부터 6학년 자녀를 둔 부모로 하였으며 최종 대상자는 실험집단 15명, 통제집단 15명으로 무선배치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개인적 특성	집단	분류	빈도	퍼센트(%)
성별	실험집단	남	4	26.7
		여	11	73.3
	통제집단	남	4	26.7
		여	11	73.3
연령(세)	실험집단	30-39	8	53.3
		40-49	7	46.7
	통제집단	30-39	7	46.7
		40-49	8	53.3
교회 출석(년)	실험집단	10 이하	5	33.3
		11-20	2	13.3
		21년 이상	8	53.3
	통제집단	10 이하	6	40.0
		11-20	4	26.7
		21년 이상	5	33.3
자녀의 나이(대상) (세)	실험집단	9-10	12	80.0
		11-12	3	20.0
	통제집단	9-10	10	66.7
		11-12	5	33.3

3) 측정도구

(1) 부모의 자녀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는 이숙(1990)이 개발한 척도를 정희정(2008)이 기독교인 부모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직접 개발하였다. 마음과 행동, 환경의 영향, 권위와 순종, 훈육과 훈계, 일관성, 모범, 그리고 대화의 7개 하위영역에 따라 총 21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정희정(2008)의 경우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8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0로 나타났다.

(2)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에서 자녀용과 부모용의 설문지를 각각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수정한 민하영(199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20개의 하위 척도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2개의 하위척도로, 개방형과 폐쇄형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항이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에 평정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88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영적 안녕

Paloutzian 과 Ellison(1982)이 개발한 영적 안녕 척도를 박지아(2002)가 수정·보완 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종교적 안녕(religious spiritual well-being)10문항과 실존적 안녕(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10문항으로 종교적 안녕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수직적 차원에서 주관적인 영적안녕을 나타내고, 실존적 안녕은 수평적 차원에서 인간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나타낸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평정하게 되어있다. 박지아의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가 .91이었고, 본 연구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95로 나타났다.

4)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7월 7일부터 2018년 4월 16일까지이며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K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U IRB 2018-0026-01)을 받은 후 4차의 준비에 의해 대상기관 및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졌다.

5)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를 이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제 특성은 X^2 -test,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고, 변인별 각 척도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비모수 검정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정을 위해 비모수적 검정기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의 효과검증을 위해 Friedman 검정 및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검증을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차이가 없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인별 각 척도에 대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여 동질한 집단으로 확인 되었다. 동질성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

검정변수	집단	N	M(SD)	평균순위 (순위합)	Mann-Whitney의 U	z	p
부모의 양육행동	실험	15	9.77 (.75)	16.17 (242.50)	102.500	-.416	.677
	통제	15	9.62(.61)	14.83 (222.50)			
부모-자녀 의사소통	실험	15	35.90 (2.32)	16.20 (243.00)	102.00	-.437	.662
	통제	15	35.43 (1.67)	14.80 (222.00)			
부모의 영적 안녕	실험	15	35.90 (2.32)	15.50 (232.50)	112.500	.000	1.000
	통제	15	35.43 (1.67)	15.50 (232.50)			

2)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결과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종료 후 프로그램 실시
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추후(4주 후)에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 간 효과를 측정하였다. 자료의 표본수가 적어 비모수 통계
분석의 Friedman 검정, Wilcoxon signed-rank test 및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1)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Friedman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실험집단의 프로그램 사전, 사후 및 4주
후의 추후 점수는 각각 $9.77 \pm .75$ 점, $11.76 \pm .66$ 점, $11.73 \pm .59$ 점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시기별 변화에 유의하게 나타났다($\chi^2=25.623$,
 $p<.001$). 통제집단 또한 프로그램 시행 사전, 사후 및 4주 후의 추후 점

수는 각각 $9.62 \pm .61$ 점, $9.72 \pm .98$ 점, $9.68 \pm .84$ 점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시기별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chi^2=2.913$, n.s.).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추후 효과 검증

구분	집단	N	사전		사후		추후		χ^2	p
			M (SD)	Median (IOR)	M (SD)	Median (IOR)	M (SD)	Median (IOR)		
부모의 양육행동	실험	15	9.77 (.75)	9.7 (9.0-10.1)	11.76 (.66)	11.8 (11.2-12.1)	11.73 (.59)	11.8 (11.2-12.0)	25.623	<.001
	통제	15	9.62 (.61)	9.5 (9.2-9.8)	9.72 (.98)	9.7 (9.0-10.2)	9.68 (.84)	9.7 (9.1-10.1)	2.913	.233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실험	15	35.90 (2.32)	36.0 (34.0-38.0)	38.66 (1.27)	38.5 (37.5-39.5)	38.56 (1.23)	38.5 (37.5-39.5)	22.533	<.001
	통제	15	35.43 (1.67)	35.0 (34.5-37.0)	35.06 (2.01)	35.0 (33.5-36.5)	35.10 (1.81)	35.0 (34.0-37.0)	3.720	.156
부모의 영적 안녕	실험	15	38.93 (4.85)	37.5 (34.5-42.5)	42.76 (3.77)	44.0 (39.5-46.0)	42.63 (3.54)	44.0 (39.5-45.0)	21.714	<.001
	통제	15	38.73 (3.51)	39.0 (35.0-41.5)	38.60 (2.45)	38.0 (37.0-41.0)	38.66 (2.18)	39.0 (37.0-41.0)	.269	.87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부모의 양육행동의 시점 간 점수 차이는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추가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실험집단에서 부모의 양육행동 점수는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z=-3.409$, $p < .01$), 4주 후의 추후 조사에서 또한 사전보다 유의한 차이가 유지되어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냈다($z=-3.413$, $p < .01$). 즉 실험집단의 부모의 양육행동은 사전 평균 $9.77 \pm .75$ 점에서 사후 $11.76 \pm .66$ 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가 4주 후의 추후 조사 시점에서는 $11.73 \pm .59$ 점으로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통제집단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점수는 프로그램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z=-.704$, n.s.), 4주 후의 추후 조사에서 또한 사전

보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z=-.512$, n.s.). 즉 통제집단의 부모의 양육행동은 사전 조사 시 평균 $9.62 \pm .61$ 점에서 사후 $9.72 \pm .98$ 점으로 미세하게 증가하였으나 4주 후의 추후 조사에서 $9.68 \pm .84$ 점으로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통제집단은 사전, 사후 및 추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사전-추후 효과 검정

구분	집단	사전-사후		사전-추후	
		z	p	z	p
부모의 양육행동	실험	-3.409	<.01	-3.413	<.01
	통제	-.704	.482	-.512	.609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실험	-3.301	<.01	-3.238	<.01
	통제	-1.267	.205	-.985	.325
부모의 영적 안녕	실험	-3.301	<.01	-3.239	<.01
	통제	-.035	.972	-.094	.92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부모의 양육행동의 사전-사후, 사전-추후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부모의 양육행동 사전-사후 ($z=-4.592$, $p<.001$), 사전-추후($z=-4.635$, $p<.001$) 효과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부모의 양육행동이 향상되었다.

〈표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 검정

구분	집단	N	사전-사후 차이				사전-추후 차이			
			M (SD)	평균순위 (순위합)	Mann-Whitney의 U	z	M (SD)	평균순위 (순위합)	Mann-Whitney의 U	z
부모의 양육 행동	실험	15	1.99 (7.90)	22.87 (343.00)	2,000	-4.592***	1.96 (.777)	22.93 (344.00)	2,000	-4.592***
	통제	15	.09 (.555)	8.13 (122.00)			.05 (.470)	8.07 (121.00)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실험	15	2.76 (1.678)	22.03 (330.50)	14,500	-4.082***	2.66 (1.924)	21.37 (320.50)	24,500	-3.664***
	통제	15	-.36 (1.245)	8.97 (134.50)			-.333 (1.519)	9.63 (144.50)		
부모의 영적 안녕	실험	15	3.83 (2.800)	21.37 (320.50)	24,500	-3.666***	3.70 (2.902)	21.50 (322.50)	22,500	-3.747***
	통제	15	-.13 (2.363)	9.63 (144.50)			-.60 (2.103)	9.50 (142.50)		

** : $p < .01$, *** : $p < .001$

2) 프로그램이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Friedman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실험집단의 프로그램 사전, 사후 및 4주 후의 추후 점수는 각각 35.90 ± 2.32 점, 38.66 ± 1.27 점, 38.56 ± 1.23 점으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시기별 변화에 유의하게 나타났다($\chi^2=22.533$, $p < .001$). 통제집단 또한 프로그램 시행 사전, 사후 및 4주 후의 추후 점수는 각각 35.43 ± 1.67 점, 35.06 ± 2.01 점, 35.10 ± 1.81 점으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시기별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chi^2=3.720$, n.s.).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의 시점 간 점수 차이는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추가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실험집단에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점수는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z=-3.301, p<.01$), 4주 후의 추후 조사에서 또한 사전보다 유의한 차이가 유지되어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났다($z=-3.238, p<.01$). 즉 실험집단의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은 사전 평균 35.90 ± 2.32 점에서 사후 38.66 ± 1.27 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가 4주 후의 추후 조사 시점에서는 38.56 ± 1.23 점으로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통제집단에서는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점수는 프로그램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z=-1.267, n.s.$), 4주 후의 추후 조사에서 또한 사전보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z=-.985, n.s.$). 즉 통제집단의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은 사전 조사 시 평균 35.43 ± 1.67 점에서 사후 35.06 ± 2.01 점으로 미세하게 감소하였으나 4주 후의 추후 조사에서 35.10 ± 1.81 점으로 미세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통제집단은 사전, 사후 및 추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의 사전-사후, 사전-추후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의 사전-사후($z=-4.082, p<.001$), 사전-추후($z=-3.664, p<.001$) 효과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향상되었다.

3) 프로그램이 부모의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부모의 영적 안녕감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Friedman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실험집단의 프로그램 사전, 사후 및 4주 후의 추후 점수는 각각 38.93 ± 4.85 점, 42.76 ± 3.77 점, 42.63 ± 3.54 점으로 부모의 영적 안녕감이 시기별 변화에 유의하게 나타났다

($\chi^2=21.714, p<.001$). 통제집단 또한 프로그램 시행 사전, 사후 및 4주 후의 추후 점수는 각각 38.73 ± 3.51 점, 38.60 ± 2.45 점, 38.66 ± 2.18 점으로 부모의 영적 안녕감이 시기별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chi^2=.269, n.s.$).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부모의 영적 안녕감의 시점 간 점수 차이는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추가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실험집단에서 부모의 영적 안녕감 점수는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z=-3.301, p<.01$), 4주 후의 추후 조사에서도 사전보다 유의한 차이가 유지되어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냈다($z=-3.239, p<.01$). 즉 실험집단의 부모의 영적 안녕감은 사전 평균 38.93 ± 4.85 점에서 사후 42.76 ± 3.77 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가 4주 후의 추후 조사 시점에서는 42.63 ± 3.54 점으로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통제집단에서는 부모의 영적 안녕감 점수는 프로그램 사전보다 사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z=-.035, n.s.$), 4주 후의 추후 조사에서도 또한 사전보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z=-.094, n.s.$). 즉 통제집단의 부모의 영적 안녕감은 사전 조사 시 평균 38.73 ± 3.51 점에서 사후 38.60 ± 2.45 점으로 미세하게 감소하였으나 4주 후의 추후 조사에서 38.66 ± 2.18 점으로 미세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통제집단은 사전, 사후 및 추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부모의 영적 안녕감의 사전-사후, 사전-추후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부모의 영적 안녕감 사전-사후($z=-3.666, p<.001$), 사전-추후($z=-3.747, p<.001$) 효과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부모의 영적 안녕감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부모의 영적 안녕감이 향상되었다.

Ⅲ. 달는 글

1. 연구의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이 기독교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부모의 영적 안녕감 향상에 효과적이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Bushnell(2004: 111)은 기독교적 자녀양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언약공동체이자 동시에 하나의 유기체로 보았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들이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모델링을 통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전달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것을 Bushnell(2004: 123)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으며, 기독교적 양육을 위한 가정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부모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Woltz(2006: 18)는 영화가 갖고 있는 편집성(verisimilitude)과 편재성(ubiquity)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매체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의 세계를 보는 방식과 자신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영화는 매우 영향력이 있는 치료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Gottman(2007: 174)은 감정코칭을 하는 부모는 자녀가 감정에 솔직하도록 장려하고 모든 감정은 용납할 수 있지만, 행동까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실 부모가 보여주는 감정표현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자녀에게는 큰 의미가 된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 안에서 영화치료(cinema therapy)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 검증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일반적인 영화치료 프로그램이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를 검증한 연

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부모교육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독교 영화치료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은 영화예술이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현실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해왔다.

1)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첫째, 기독교적 양육이론과 영화치료이론 그리고 감정코칭이론을 융합하여 순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영화의 치료기능을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영화의 탁월한 심리적이며 기술적 능력이 기독교 시각으로 새롭게 조명되면서 부모교육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향해 사용가치를 검증받는 일이라 볼 수 있다.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자녀양육의 어려운 현실은 집집마다 다른 만큼 매우 다양하며 복잡하다. 영화는 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힌 자녀양육의 현실을 여러 모양으로 인식시키는 동시에 영적이며 심리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영화를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역할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아울러 자녀양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부모 자신과 자녀를 위한 감정을 다루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둘째, 기독교 부모를 대상으로 교회 내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기독교인 부모들이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에 이르도록 통찰력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신앙의 관점에서 부모 자신들이 자녀에게 행하는 양육행동을 먼저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현 실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기독교인 부모들이 영화를 본

후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현상으로부터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비롯하여 자녀와의 감정을 교류하며 양육행동과 자녀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 아울러 부모들이 평균 곧 진정한 살롬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2)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기독교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영적 안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기독교인 부모들을 위한 본 프로그램은 부모 자신의 영적 건강을 중심으로 자녀와 감정을 교류하며 양육행동에 있어서 자녀와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더불어 진정한 살롬을 제공하였다.

첫째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는 실험집단의 시기별 $[x^2=25.623, p<.00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사후 $[z=-4.592, p<.001]$ 및 사전-추후 $[z=-4.635, p<.001]$ 측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는 실험집단의 시기별 $[x^2=22.533, p<.00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사후 $[z=-4.082, p<.001]$ 및 사전-추후 $[z=-3.664, p<.001]$ 측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의 영적 안녕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는 실험집단의 시기별 $[x^2=21.714, p<.00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사후 $[z=-3.666, p<.001]$ 및 사전-추후 $[z=-3.747, p<.001]$ 측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결론 및 제언

결론적으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기독교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영적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영화치료를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기독교 부모의 양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중심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영적 안녕감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론을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과 미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정리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영화치료를 활용한 Bushnell의 이론적 기틀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아무 처치를 하지 않은 통제 집단 간의 실험연구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후속연구에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세계관의 충돌이 없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이론적 기틀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부모교육을 연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성경적 교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기독교 영화를 선정할 후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부모가 인구학적으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부모로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확한 프로그램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험 대상자를 부와 모를 같은 비율로 선정하여 균형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부와 모가 영화를 보고 난 후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부의 교육과 모의 교육을 따로 연구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영화치료를 사용되었던 영화들이 우리나라의 영화가 아닌 전체가 자막이 있는 외국영화라는 점에서 한국 정서와 다를 수 있다. 물론 자막을 읽기에 어려움은 없었으며, 영화 보는 것을 기대하는 감

정과 영화를 보고 난 후 감정을 나누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사실이지만 한국의 기독교 영화는 달리 미국에서 수입된 기독교 영화들은 간증 형식의 드라마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영화가 일으키는 지각과 인식의 변화의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 영화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기존의 영화치료를 살펴보면 주로 일반적인 병리적 이론 연구에 치중되어 온 경향성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 영화치료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기독교인 부모교육에 기독교 영화를 가지고 더욱 정교한 연구계획과 연구 설계를 세우고 다양한 주제와 대상에 맞는 기독교 영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체적인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 강경란 (2013). 여성 한 부모의 행복증진을 위한 집단영화치료 프로그램 효과. 경성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연정 (2005). 목회자 자녀의 건강한 자아형성을 위한 상담의 과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9(9), 113-144.
- 강진구 (2012). 기독교영화치유의 이해와 전망. 한국기독교상담학회, 15, 76-93.
- 김선아 (2011). 전인적 기독교 가정교육의 사상적 기초로서의 Comenius 와 Bushnell이해. 기독교교육정보, 31, 1-26.
- 김수지 (2005). 대인관계향상을 위한 상호작용적 영화치료의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지 (2013). 자기조력적 영화치료와 상호작용적 영화치료의 효과 비교. 영화연구, 55, 83-126.
- 김정화 (2015). 우울한 50대 전업주부의 영화치료 경험연구. 백석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창대, 김형수, 신을진, 이상희, 최한나 (2011).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서울: 학지사.
- 신용주, 김혜수 (2017). 다음세대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심영섭 (2011). 영화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이숙, 우희정, 최진아, 이춘아 (2009). 훈련중인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이숙미 (2008).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형, 민하영, 권혜진, 정윤주, 한유진, 최윤경, 권기남 (2010).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이영일 (1997). 영화개론. 서울: 집문당.
- 장병일 (1989). Horace Bushnell의 사상이해, 기독교 가정 교육론을 중심으로. 기독교와 교육, 1, 50-55.
- 정옥분, 정순화 (2016).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정희영, 정갑순, 김동춘, 김미경, 강은주, 최영애 (2007). 기독교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정희정 (2008). 성경적 상담을 활용한 기독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총신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경선 (2006). 기독교 부모의 자기성장을 기반으로 한 부모역할 증진 프로그램 개발.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ushnell, H. (2004). 기독교적 양육(김도일 역, *Christian Nurture*).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원전 1861년 출판).
- Calvin, J. (1834). *Novi Testamenti epistolas commentarii*, Berolini, Apud Gustavum Eichler.
- Collins, G. R. (2008). 뉴크리스천 카운슬링(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역, *New Christian Counseling*). 서울: 두란노. (원전 2007년 출판).
- Ginott, H. (2003). 부모와 십대사이(신홍민 역, *Between Parent and Teenager*). 서울: 양철북. (원전 1969년 출판).
- Gottman, J. M. (2007).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남은영 역, *Raising an Emotionally Intelligent Child: The Heart of Parenting*). 서울: 한국경제 신문 한경 BP. (원전 1997년 출판).
- Heston, M. L. & Kottman, T. (1997). Movies as metaphors: A counseling intervention. *Journal of Humanistic Education and Development*, 36, 92-99.
- Köstenberger, A. & Jones, D. (2016). 성경의 눈으로 본 결혼과 가정(윤종석 역, *God, Marriage, and Family*). 서울: 아버서원. (원전 2004년 출판).
- Schulenberg, S. E. (2003). Psychotherapy and movies: On using film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33(1): 35-48.
- Wedding, D., Boyd, M. A. & Niemiec, R. M. (2012). 영화와 심리학(곽호완, 장문선, 구본훈, 배대석 역, *Movies and mental illness: Using Films to Understand Psychopathology 3rd ed*). 서울: 학지사. (원전 2012년 출판).
- White, S. D., & Davis N. (2015). 상담에서 통합적 표현예술의 활용(윤혜선 역, *Integrating the expressive arts into counseling practice*).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원전 2011년 출판).
- Woltz, B. (2006). 시네마테라피(심영섭, 김준형 역, *E-Motion Picture Magic*). 서울: 을유문화사. (원전 2005년 출판).

【 Abstract 】

Development and Effect of Christian Parent Education
Program using Cinema Therapy

Ko, Sun Ok & Kang, Yeon Jeong

Kos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velop a Christian parent Education program using cinema therapy based on Birgit Wolfz (2006)'s Cinema Therapy theory, Horace Bushnell (2004)'s Christian Nurture theory and John Gottman (2007)'s Emotional Coaching theory and to investigate its effects.

This program were conducted expert validity investigation and preliminary research, and the participants were selected Christian parents with school aged children 9 to 12 at the C/D church in C city.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 two groups of 15 people each that were allotted randomly. One is a test group and the other is a control group. The program were conducted two sessions a week, 120 minutes per session and total 12 session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5 program,

In conclusion, the Christian parent education program using cinematherapy developed by this researcher prov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parenting behavior,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spiritual well-being of Christian parents. Therefore, the Christian parent education program using cinematherapy suggests that it is an in-church viable program that can help improve spiritual well-being through communication with children based on the professional knowledge of parenting of Christian parents.

Key words: Christian parent education, Christian cinema, Christian cinematherapy, cinematherapy program, emotional coaching.